



살며 생각하며 (2) Thoughtful Living (2)

준비하며 사십니까? Do You Live Your Life Prepared? (마태복음 Matthew 24:44-51)

1. 청지기 신분을 인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See yourself as God's steward.
2. 하나님의 때에 민감해야 합니다.
Be sensitive to God's time.
3. 선택해 주시고 맡겨 주심에 대한 감사함을
간직해야 합니다.
Cultivate a grateful heart to God.

오이코스나눔지

odpcoikos

1. 하나님의 청지기로 산다는 것은 "소유의 부요"가 아니라 "존재의 부요"를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왜 "소유의 부요"를 누리기를 원합니까? "존재의 부요"를 누리기를 위해 무엇을 실천하면 좋겠습니까?
Living as God's stewards means pursuing "richness of being," not "richness of having." Why do people want to enjoy "richness of having"? What can we choose to do to enjoy "richness of being"?

2. 우리는 물질과 재능의 청지기일 뿐만 아니라 시간의 청지기입니다. 시간의 청지기임을 쉽게 잊어버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때와 목적에 민감한 카이로스 시간을 선용할 수 있겠습니까?
We are not only the stewards of possession and talent, but also the stewards of time. Why do we easily forget our stewardship of time? How can we make good use of kairos time, being sensitive to God's time and purpose?

3.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기 위한 올바른 동기는 감사함입니다. 두려움이나 의무감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지키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합니까?
The proper motivation to live as God's stewards is gratitude. What happens when we serve God out of fear or obligation? What should we do to keep a grateful heart toward God?